

##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 분석

김성숙\* · 김정현\*\* · 정인경\*\*<sup>1)</sup>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중앙대학교\*\*

---

### A Study on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in Free Learning Semester

Kim, Seong-Sook\* · Kim, Jung-Hyun\*\* · Jung, In-Kyung\*\*<sup>1)</sup>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Free Learning Semester (FLS) in home economics teacher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s for effective implement of FLS in future school curricula.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ived that the objective of FLS was to help students explore their careers and make preliminary decisions. In addition, teachers thought that FLS should be run by active students' participation to find out their dreams and talents. However, teachers felt difficulties in obtaining information or documents related to implementing FLS. Moreover, there were lack of connected activities with local communities to operate FLS. Teachers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receive FLS-related education. Regarding home economics teachers' role in FLS implement, they should provide career education with a perspective of lifelong career and nurture students' capability to lead their lives by themselves. In that sense, FLS should help students find out their dreams and talents, think about their career, set up lifelong career plan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nurture capability to lead their lives. In addition,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provide continuous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t academic semesters.

**Key words:** 자유학기제(free learning semester, FLS), 가정과 교사(home economics teacher), 가정과교육 (home economics education)

---

1) 교신저자: Jung, In-Kyung,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Tel: 82-2-813-2897, Fax: 82-2-817-7304, E-mail: ikjung@cau.ac.kr

## I. 서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부분이 자신의 적성이나 특기를 발견할 기회를 스스로 탐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경민, 2013). 이에 현 정부에서는 중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2013년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전국의 42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4년에는 811교, 2015년에는 2,550여 개의 학교를 지정하여 2년여 동안 시범운영 하였고, 2016년 1학기에 전면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각종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Shin, Hwang, & Kim, 2014). 이를 위해서 진로 체험 중심의 수업 강화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강조해왔으며 점차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줄 뿐 아니라 교실 수업을 변화시켜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현아, 2015). 그러나 사교육의 확장과 운영의 주체인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재 그리고 진로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3).

이러한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된바 있다(Kim, Ra, Lee, Keum, & Park, 2016). 즉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내용,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습득해서 교육적 수행자로서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Yoon, Yoon, & Woo, 2011). 따라서 교육활동은 교사의 인식 정도와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Choi, Kim, Kwon, Oh, & Park, 2008) 자유학기제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및 운영과정의 선택, 평가 등에 대한 인식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가정교과는 자유학기제 도입 이전부터 교과의 목

표, 교과의 내용 측면에서 전 생애 설계를 통한 생활의 자립 및 진로 탐색과 설계에 학습의 지향점을 두고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과로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Kang, 2011; 권유진 등, 2010). 그러나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가정과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자유학기제에서의 기술·가정교과 통합 진로교육 운영방안 연구(Kim, 2013)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의 가정교과 운영실태 연구(Lee, Son, Kim, & Cho, 2014) 뿐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실행 취지에 적합한 과목인 가정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자유학기제가 학교교육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유학기제와 학교교육의 변화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를 복돋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초로 사용한 개념인 자유학기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끼를 탐색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이 아닌 학생 주도적 학습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9월부터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2015년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해 오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2017년부터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연계·확대한 자유학년제를 추진하고 있다. Kim(2013)은 자유학기제를 ‘3학기제’, ‘2학기제’와 같은 학사 운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고, 시간 운영의 특징과 함께 교육과정과 평가 등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실행하는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라고 하였으며, Son(2013)은 자유학기제를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창의 인재를 양성하며 학교교육

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학생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소질과 적성을 찾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중학교 단계에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 개 학기 동안 시행되는 교육과정의 혁신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학생들에게 사회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Park, Joo, & Ko, 2014).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실습, 토론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제시(Ministry of Education, 2013)하고 있다.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벗어나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철균, 2013; Lee, Son, Kim, & Cho, 2014). 즉, 토론, 실험활동, 직업체험 등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기존의 단편적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넣어주기 교육이 아닌 스스로 배우는 교육으로 더 나아가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되도록 학교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신철균, 2014).

Ministry of Education(2013)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형으로 진로탐색 중점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모형은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한 가지 모형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모형을 혼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탐구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거나 교과 간 융합·연계 수업이나 주제중심 통합 수업 등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Jeong, 2013).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경우 각 교과목의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축약하거나 다른 교과와 통합하는 등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의 시수를 확보하면서도 토론

과 프로젝트 등 학생활동·현장중심의 수업으로 교과과정이 재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Ji, 2016).

자유학기제의 추진 목적에 적합한 교과과정과 수업방식이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간·기말고사는 지양하고 학교별로 실습·토론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에 따른 학생중심 활동에 부합되는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특성 뿐 아니라 학습동기, 수업참여도, 노력정도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 역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지은림, 2014). 이미 각 학교에서는 지필·총괄평가 대신 학생 참여형 토론 활동이나 실습활동을 통한 수행·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성취과정, 경험과정, 수업과정 등 비가시적인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m, Kim, Lee, & Hong, 2015). 또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동료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위주의 집단평가방식이 아닌 학생자기평가 또는 학생동료평가 등 상호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Won, 2016).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각 학교의 교육적 환경과 지역사회의 지원,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 및 지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유학기제와 가정교육의 이해

자유학기제는 청소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경로를 제공하는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진미석, 2014).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질과 생애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ee, 2013a).

특히, 자유학기제에서 진로교육은 기존의 강의 위주의 단편적이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제 삶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실효

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3).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진로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 교육 내용 요소를 연계하여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Kim, 2013). 기술·가정교과는 실천교과의 성격을 가진 교과로서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Lee, 2012; Ministry of Education, 2015).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의 목적은 직업체험 중심 교육이 아닌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한 인성, 사회적,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이다. 이에 교과를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일의 중요성,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역량과 같은 기초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배우며 자신의 진로개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과는 1차 교육과정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진로와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꾸준히 제시되어 있으며(Son, 2009)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살피고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진로의식을 향상시키는 진로교육을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과이다(Cho, Kim, & Kang, 2011; Hong & Yoo, 200).

자유학기제에는 실생활과 연계된 활동 위주의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수업 형태와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참여를 유도하면서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참여형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다양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교과융합 수업, 학생 선택 프로젝트, 동아리활동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체험활동과 연계한 수업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 et al., 2014). 이러한 학생의 학습과 삶에 의미 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험·참여형 교수·학습 방법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는 기술·가정교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가능하다. 특히, 가정생활 분야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과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기주도성과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하는

실천적 추론의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정교과는 자유학기제에서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는 교과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어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운정, 2013; 채정현, 2013).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 ‘학교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취지가 타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는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 중학교 한 학기만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자유학기 이후 일반학기에도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자유학과 같은 특성이 발현되도록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Kim & Hong, 2016). 지금까지 가정과 교육은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및 실험·실습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진행해왔던 바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교육활동의 지속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많은 연구와 준비가 요구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로 조사기간인 2014년 10월 1일부터 11월 8일 시점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연구학교와 희망학교)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일반 중학교(일반학교)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1041078-201501-HRSB-022-01). 해당학교 가정과 교사에게 사전에 연락한 다음 설문지를 각 학교에 1부씩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교사들은 연구에 대한 이해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 내용을 기입하였다.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는 반송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6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현재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학교의 운영실태 및 가정과 교사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행연구(Au, 2013)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개발한 후 가정교육 전공 박사 학위를 소지한 가정과교사 3인과 진로진학상담 교사 1인에게 설문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사항(5문항) 및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 정도(4문항), 교사 연수 등의 지원사항(4문항) 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있어 가정과 및 교사의 역할(3문항)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시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은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조사되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운영현황 및 교사들의 이해도 및 인식, 발전방향 등에 대한 결과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연구학교와 희망학교)와 미 실시 학교인 일반학교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그 차이는  $\chi^2$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차이는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자유학기제의 운영 목적 및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과 취지의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교사의 58.4%가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는 3.1%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연구학교나 희망학교 교사의 73.6%가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학교 교사의 경우 46.1% 만이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교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자유학기제의 운영목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의사결정’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아확립과 인간적 성숙’과 ‘학업 부담과 긴장 완화 및 학습 동기 고취’가 각각 17.4%와 13.7%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11.8%,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 기능 강화’가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운영방안의 핵심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 수업·체험을 통한 진로 교육 강화’가 32.3%로 높게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운영목적과 운영방안 핵심 과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시범 및 희망학교와 미운영 일반학교 교사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꿈과 끼를 탐색하는 교육내용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율(74.5%)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전환’과 ‘학업 스트레스 감소 및 학습동기 부여’라는 응답도 각각 42.2%, 41.0%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가정과교사 중 운영학교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입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았으며, Shin 등(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유학기제 비운영 학교교사들의 자유학기제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련한 교사대상 연수나 정보 제공 등의 지원과 홍보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통해 성숙된 인간으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유학기제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꿈과 끼를 탐색하는 교육내용을 자기주도적 교수·학습방법으로 배우는 교육과정 패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자유학기제의 정책 취지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자유학기제 운영 시 우려되는 사항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 전체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교사의 업무 가중’ 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자유학기제 운영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체험교육 기관의 부족’ 역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에 ‘학습습관 및 학력 저하 우려’나 ‘운영진의 관심부족’, ‘학부모나 학생, 교사들의 관심부족’ 등의 항목의 경우 3.0점 이하로 낮았다.

운영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 간 자유학기제 운영 시 우려

Table 1. Understanding the purpose and intent of free learning semester

Items	Categories	n(%)		
		Operating school (n=72)	Non-operating school (n=89)	Total (n=161)
Introduction intent	Know very well	9(12.5)	11(12.4)	20(12.4)
	Know	44(61.1)	30(33.7)	74(46.0)
	Moderate	18(25.0)	44(49.4)	62(38.5)
	Do not know	1(1.4)	4(4.5)	5(3.1)
	Know nothing of	0(0.0)	0(0.0)	0(0.0)
$\chi^2 = 13.912^{**}$				
Operating purpose	Career exploration of students	39(54.2)	38(42.7)	77(47.8)
	Academic stress burden & motive inspiration	7(9.7)	15(16.9)	22(13.7)
	Identity establishment & personality maturity	12(16.7)	16(18.0)	28(17.4)
	Change of social recognition about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9(12.5)	10(11.2)	19(11.8)
	Emphasis on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0(0.0)	2(2.2)	2(1.2)
	Strengthening of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function in school education	5(6.9)	7(7.9)	12(7.5)
	Others	0(0.0)	1(1.1)	1(0.6)
$\chi^2 = 5.142$				
Core task	Strengthening of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through experience education	21(29.2)	31(34.8)	52(32.3)
	Change to student participatory teaching-learning strategies	44(61.1)	51(57.3)	95(59.0)
	Eliminate the burden of students by abolishing the examination	1(1.4)	3(3.4)	4(2.5)
	Educational Innovation overall	4(5.6)	3(3.4)	7(4.3)
	Others	2(2.8)	1(1.1)	3(1.9)
$\chi^2 = 2.144$				
Basic direction <sup>1)</sup>	Strengthening of educational curriculum & contents for exploring dream and talent	56(77.8)	64(71.9)	120(74.5)
	Change to Learner-centered teaching & learning	35(48.6)	33(37.1)	68(42.2)
	Community related experiential leaning	23(31.9)	32(36.0)	55(34.2)
	Learner-centered performance assessment	17(23.6)	23(25.8)	40(24.8)
	Academic stress reduction & learning motivation	23(31.9)	43(48.3)	66(41.0)
	Utilization of community related human resources	15(20.8)	11(12.4)	26(16.1)
Others	1(1.4)	0(0.0)	1(0.6)	

1) multiple responds \*\*p<0.01

Table 2. Problems in operating system of free learning semester

Items	Operating school (n=72)	Non-operating school (n=89)	t value	Total (n=161)
Burden of teachers' workload	3.4±0.6 <sup>1)</sup>	3.5±0.5	-1.458	3.4±0.6
Shortage of professional resources	3.3±0.6	3.5±0.6	-1.918	3.4±0.6
Lack of vocational institutes	3.2±0.7	3.3±0.7	-.604	3.3±0.7
Lack of budget	2.9±0.8	3.4±0.6	-4.886 <sup>***</sup>	3.2±0.8
Difficulty of student evaluation	3.0±0.7	3.2±0.7	-2.077 <sup>*</sup>	3.1±0.7
Lack of information & materials	2.9±0.7	3.3±0.7	-3.335 <sup>**</sup>	3.1±0.7
Lack of program	3.0±0.8	3.2±0.7	-2.052 <sup>*</sup>	3.1±0.7
Lack of learning time for career searching activities	2.8±0.7	3.2±0.6	-3.728 <sup>***</sup>	3.0±0.7
Lack of variety programmes	2.8±0.7	3.2±0.7	-3.735 <sup>***</sup>	3.0±0.8
Poor academic performance	3.0±0.9	2.8±0.8	1.322	2.9±0.8
Occurrence of underprivileged minority students	2.6±0.8	3.1±0.6	-4.142 <sup>***</sup>	2.9±0.7
Increasing of students' own expense	2.6±0.8	3.0±0.6	-3.391 <sup>**</sup>	2.9±0.8
Poor study habits	2.9±0.9	2.8±0.8	.407	2.9±0.9
Lack of teachers' interest	2.5±0.6	2.9±0.7	-2.891 <sup>**</sup>	2.7±0.7
Lack of students' interest	2.4±0.7	2.8±0.7	-3.095 <sup>**</sup>	2.6±0.7
Lack of parents' perception	2.4±0.7	2.9±0.7	-4.235 <sup>***</sup>	2.6±0.8
Difficulties of career education implement	2.4±0.7	2.6±0.8	-1.672	2.5±0.8
Lack of managers' perception	2.0±0.6	2.3±0.6	-3.605 <sup>***</sup>	2.1±0.6

1) Mean±SD, \*p<0.05, \*\*p<0.01, \*\*\*p<0.001

되는 사항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운영학교 교사에 비해 일반학교 교사가 우려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예산의 부족’과 ‘학생들의 진로활동 시간 부족’, ‘프로그램 활동 시 친한 친구들끼리만 활동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음’,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등의 항목에 있어서 운영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선행연구(Hwang & You, 2016; Kim & Min, 2016)에서도 자유학기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활동을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교육 및 행정 업무에 추가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로체험활동을 전문적으로 계획, 운영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상대적으로 심리적 업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im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 체험 인프라의 부족이 자유학기제 정착을 어렵게 하는 학교 외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조사대상 교사들도 자유학기제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직업체험교육 기관의 부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영학교 교사에 비해서 일반학교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일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나 교육을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자유학기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가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 및 직업 체험을 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와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및 매뉴

Table 3. Perception about efficient improvement plan

Items	Operating school (n=72)	Non-operating school (n=89)	t value	Total (n=161)
Reduction of teachers' administrative workload	3.8±0.5 <sup>1)</sup>	3.8±0.4	-.720	3.8±0.4
Supporting assistance manpower	3.7±0.5	3.6±0.5	.853	3.6±0.5
Development & supplement of career educational program	3.7±0.5	3.6±0.5	1.004	3.6±0.5
Securement of vocational experience facility	3.6±0.5	3.6±0.5	.300	3.6±0.5
Improvement of high school entrance exams system	3.6±0.6	3.4±0.7	1.836	3.5±0.7
Activation of Teacher Training	3.4±0.5	3.4±0.5	.549	3.4±0.5
Parent participation in school education	3.4±0.5	3.4±0.5	.274	3.4±0.5
Development of students' evaluation system	3.4±0.6	3.4±0.7	.009	3.4±0.7

1) Mean±SD

얼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가 3.6점으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운영학교의 교사와 일반학교의 교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의 결과에서 '교사의 업무 가중'과 '전문인력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체험 기관 부족' 등을 자유학기제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되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어 직무만족도가 저하되면 교사의 주도적인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어 정책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산출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부차적인 행정업무 등의 간소화 및 행정 인력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Kim & Min, 2016; Lee, Lim, & Kwon, 2015). 선행연구(신철균, 2014; Hong, Lim, & Jang, 2013)에서도 자유학기제는 학교 밖의 체험 활동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교사 뿐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 등이 실제 운영의 주체가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원활한 직업 체험 진행을 위하여 학생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체나 기관 등의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통한 효과적인 진로체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경우 자녀들의 학력 저하와 성취수준 평가의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in et al., 2014).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교사(Kim & Lee, 2016) 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eo & Chae, 2016)에서도 빈번한 수행평가의 어려움과 평가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 체험 활동의 구현 및 교육과정의 재구성, 수업방법의 개선과 함께 기존의 평가체계를 벗어나 개인별 평가 기록포나 학생 관찰기록표, 성장기록지 등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평가 방안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Lim et al., 2015).

### 3) 자유학기제 관련 교사 연수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를 운영했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의 86%가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를 받은 반면, 일반학교 교사의 경우 43%만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이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최상덕, 2014). 그러나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자율 과정 프로그램 구성과 교과 간 수업 연동 등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연수가 모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교사 연수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연수가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98.2%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3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Table 4. Experience of teacher training and awareness of the need for training

		n(%)		
Items	Categories	Operating school (n=72)	Non-operating school (n=89)	Total (n=161)
Experience of teacher training	Yes	62(86.1)	38(42.7)	100(62.1)
	No	10(13.9)	51(57.3)	61(37.9)
$\chi^2 = 31.878^{***}$				
Necessity of teacher training	Very necessary	24(33.3)	36(40.4)	60(37.3)
	Necessary	46(63.9)	52(58.4)	98(60.9)
	Unnecessary	2(2.8)	1(1.1)	3(1.9)
	Completely unnecessary	0(0.0)	0(0.0)	0(0.0)
$\chi^2 = 1.320$				
Training contents	Career education	2(2.8)	5(5.6)	7(4.3)
	Teaching-learning strategies	29(40.3)	22(24.7)	51(31.7)
	Type of Program	39(54.2)	58(65.2)	97(60.2)
	Career counseling strategies	2(2.8)	2(2.2)	4(2.5)
	Others	0(0.0)	2(2.2)	2(1.2)
$\chi^2 = 6.243$				
Intention of receiving training	Yes	9(90.0)	46(90.2)	55(90.2)
	No	1(10.0)	5(9.8)	6(9.8)

\*\*\*p<0.001

교사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자유학기제 유형별 ‘프로그램 종류’가 60.2%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자유학기제 관련 교사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다음에 연수 기회가 있다면 연수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0.2%의 교사가 연수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운영학교의 교사나 연수를 받지 못한 일반학교의 교사 모두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

### 3.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가정과 교육 및 가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 1)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과 교육 및 가정교사의 역할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체험학습 위주의 경험을 통해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갖게 한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교사간의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유학기제를 교육과정 운영 시 가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가정과 교사 모두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진로교육의 지도’가 각각 26.1%, 3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행복지향 교육 실시’가 각각 19.4%, 28.1%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는 단순히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설계를 위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Lee, 2013b),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각 교과목의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가정교과는 급변하는 사회생활에서 학습자가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 실천교과로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장명희, 2014), 각 영역별로 진로교육

Table 5. The role of the teacher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on free learning semester

		n(%)		
Categories		Operating school (n=72)	Non-operating school (n=89)	Total (n=161)
Home economics education	Development of aptitude & talent	25(34.7)	20(22.5)	45(28.0)
	Proper attitude for work and occupation	19(26.4)	33(37.1)	52(32.3)
	Preparation for the future	9(12.5)	11(12.4)	20(12.4)
	Formation of positive the self-concept	16(22.2)	25(28.1)	41(25.5)
	Others	3(4.2)	0(0.0)	3(1.9)
		$\chi^2 = 7.792$		
Teacher	Career education	26(36.1)	29(32.6)	55(34.2)
	Perform the education for happiness	14(19.4)	25(28.1)	39(24.2)
	Development of variety teaching-learning strategies	11(15.3)	7(7.9)	18(11.2)
	Educate the moral values	10(13.9)	14(15.7)	24(14.9)
	Put emphasis on the work-family balance	10(13.9)	12(13.5)	22(13.7)
	Others	1(1.4)	2(2.2)	3(1.9)
		$\chi^2 = 3.582$		

내용 요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어 정보를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on, Park, & Chae, 2009). 또한 채정현(2013)은 가정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청소년기에 미래의 생애설계적 차원에서 진로교육으로서 직업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좀 더 포괄적인 진로교육임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본 조사 대상 가정교사들은 가정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진로 및 융합교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교과이며 가정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갖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적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유학기제에서의 효과적인 가정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자유학기제를 시행 중인 학교 교사에게 자유학기 운영 후 어떠한 교수·학습법으로 기술·가정 교과를 운영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실험·실습활동’(47.2%)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젝트 탐구활동’(26.4%)가 그 다음 순이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은 일반학교 교사들에게 자유학기제 시행 시 기술·가정 교과의 교수·학습법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운영학교 교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실제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교육활동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본 조사 대상 가정교사들은 가정과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실험·실습활동과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교수·학습방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론활동 및 협동·융합형 교수법과 체험활동 교수법 등의 활용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에서는 교육과정 및 방법의 자율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 중심적인 수업 형태와 방법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가정교과관련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Lee et al., 2014)에서도 주로 가정과관련 직업체험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한 진로교육활동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교과통합을 통한 진로교육 활동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업운영의 주체자로서 가정과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가정과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타 교과 교사와의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교과통합 수업을 개발하고 학교 내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Kim, 2013).

Table 6.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 in free learning semester

Categories	n(%)		
	Operating school (n=72)	Non-operating school (n=89)	Total (n=161)
Project-based inquiry activity	19(26.4)	21(23.6)	40(24.8)
Searching and discussing activity	7(9.7)	6(6.7)	13(8.1)
Experimental and practical learning	34(47.2)	38(42.7)	72(44.7)
Lecture	1(1.4)	1(1.1)	2(1.2)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teaching	0(0.0)	0(0.0)	0(0.0)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education	3(4.2)	12(13.5)	15(9.3)
Others	8(11.1)	11(12.4)	19(11.8)

$\chi^2 = 4.528$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해봄으로써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른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역할과 자유학기제에 있어서 가정과를 통한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운영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나 목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교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영학교 교사가 일반학교 교사보다 도입취지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핵심 과제로 하여 꿈과 끼를 탐색하는 교육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기본 운영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운영 하는 데 있어서 과반 수 이상의 교사가 자료나 정보 취득이 어렵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직업체험교육 기관의 연계활동 부족은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교사 모두 문제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유학기제 관련 교사 연수 경험에 대해서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교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받을 의향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교사 모두 연수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험활동 관련 정보 뿐 아니라 학생참여 중심적인 교수법과 교과통합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의 교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타당한 평가 전략 등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과의 역할로는 체험학습 위주의 경험을 통해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갖게 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교사의 역할로는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지도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시 가정 교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실험·실습활동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적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학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를 통해 지금까지 운영 사례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방면의 체험기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스스로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수학습을 활용한 수업을 고안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로탐색역량 역시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담당 교사 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교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과 전문 인력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한 학기 단편적 체험학기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과와 타 교과와의 통합형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의 체계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기 이전에 수집되어 분석된 것으로 현재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및 가정과 운영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유학기제의 가정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도 연구와 자유학기제 각 모형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Au Y-K (2013). The Career maturity improvement effect according to the career education and Operational direction for transition semester.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0(1), 27-49
- Cho J, Kim S, Kang S (2011). Current State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i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the Middle Schoo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67-85.
- Choi S-H, Kim E-S, Kwon O-K, Oh C-H, Park K-T (2008).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and Perceptions of Science Teachers and Students Regarding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f High School Science Subjects.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52(1) 96-106
- Hong H-J, Lim Y-N, Jang S-Y (2013). An Inquiry on the Loose Semester for Career Explora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Survey of Stakeholder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9(2) 33-68
- Hong H-Y & Yoo T-M (2008). Analysis of Influential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elf-Identity.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3). 49-64.
- Hwan J-Y & You J-A (2016). Exploring Middle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 Free Semester System.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5(1), 949-962.
- Jeong K-S (2013). Approach to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Subjects Teaching in Middle School.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7(3), 1-30.
- Ji S-Y (2016). A Study on Social Studies Teachers' Recognition and the Transition in Social Studies Educ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Unpublished ma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K-S (2011).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Career Education Unit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8), 113-124.
- Kim D-I, Ra Y, Lee H-E, Keum C-M, Park S-Y (2016). Investigating Facilitating and Risk Factors for Successful Free-semester Program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2), 345-371.
- Kim E & Min S (2015). Does the Introduc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olicy Increase Teachers' Workload?.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2(2), 181-203
- Kim E-J (2013). Career Education in 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 and Application Plan in Free Learning Semester - Focus on Home Economics education Unit - .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3), 105-121.
- Kim J & Lee B (2016). Practical Strategies of Student Assessment in Happy Edu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n Free Semester Program. *Korean Education Inquiry*, 34(3), 113-132.
- Kim J-S (2013). Comparison of Curriculums between 'Transition Year' in Ireland and 'Free Learning Semester' in Korea.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3(6), 163-183
- Kim M-J & Hong H-J (2016). Research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and its Implication for the Identity of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1), 1-28
- Lee B-H, Lim Y-H, Kwon, M-S (2015). An Inquiry on the stably settling Methods for Free Semester System based on the Survey of Education Commun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2), 103-126.
- Lee E-Y, Son J-Y, Kim Y-S, Cho J-S (2014). Home Economics related Programs from the First Pilot Schools implementing the Free Learning Semes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69-89.
- Lee J-Y (2013a). The Validity of Career Oriented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22.
- Lee, J-Y (2013b).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51.
- Lee S-H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fe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cross the life spa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123-142.
- Lim J-I, Kim M-J, Lee J-C, Hong H-J (2015). Analysis of education assessment characteristics on pilot schools of Free Learning Semester.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8(3), 233-255.
- Ministry of Education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안).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
- Park K-Y, Joo Y-H, Ko Y-J (2014).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2(1), 25-51.
- Shin C-K, Hwang E-H, Kim E-Y (2014). An Analytical Study on the Operation and Actual State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3), 27-55.
- Son H-K (2013). Constitutional Issues Arising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5(1), 151-180.
- Son H-H, Park M-J, Chae J-H (2009). A Content Analysis on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Textbook of the Secondary School developed by the 7th Educational Proces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4), 145-158.
- Won H-H (2016). An Exploration on Formative Evaluation Methods for Free Semester System in Middle School.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8(1), 289-299.
- Yeo J-Y & Chae S-M (2016). The School Experience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5), 698-708.
- Yoon H, Yoon W, Woo A-J (2011).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2009 Revised Science Curriculum and the Science Textbook,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5(3), 757-776.
- 강신천 (2014). “꿈과 끼 키우는 ‘행복수업’을 위해서는...”, 『행복한 교육』, 379, 22-25.
- 권유진, 김순주, 김신애, 이지현, 남희화, 최미선 (2010). 가정교과에서의 진로교육과 실천 사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63-190.
- 문경민 (2013). “아이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좋은 교사』, 152, 50-55.
- 박현아 (2015). “자유학기제 훈풍 타고 현장에 안착”, 『행복한 교육』, 392, 22-31.
- 신철균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양창욱 (2015). BBS방송. ‘양창욱의 아침저녁-자유학기제때도 정상수업합니다’ 2015. 4. 27일자,
- 이운정 (2013). 자유학기제를 통한 가정교과의 진로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4-95.
- 장명희 (2014). 가정과교육에서의 진로개발역량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2-84.
- 정철균 (2013). 직업체험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 지은림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진미석 (2014). “자유학기제: 주요쟁점과 이슈”. 『학교운영위원회』,  
171, 11-31.  
채정현 (2013).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2013(7), 52-61.  
최상덕 (2014).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학교별 사례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시점에 중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자유학기제가 학교교육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및 가정과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조사대상 중학교 가정과교사들은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목적으로 학생의 진로탐색 및 1차적 진로 의사결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방법을 핵심과제로 하여 꿈과 끼를 탐색하는 교육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학기제의 도입취지나 목적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활동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반학교 교사들의 경우 자유학기제 관련 교사연수의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수 경험이 없는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교사 모두 자유학기제 관련 내용의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가정과교사의 역할로는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애를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학교 시기는 자아, 소질, 기회 등을 탐색하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탐색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가정 교과를 통해 생애설계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자유학기가 한 학기의 이벤트성 운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일반학기에도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수업으로 연계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2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2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3월 13일